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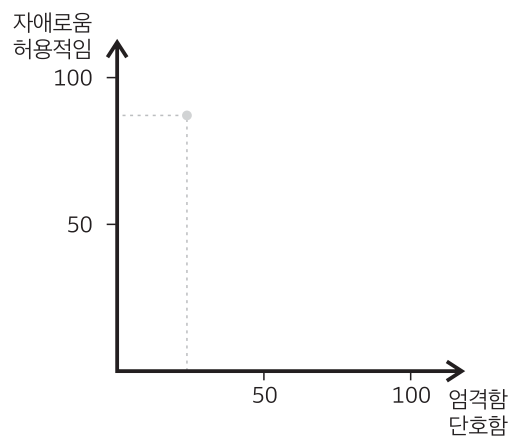


나는 어떤 부모인가요?

광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희정

• 나는 어떤 부모인지 체크해볼까요?

- 만약 자애로움이 80정도이고, 엄격함이 30이라면 두 점이 만나는 곳에 점을 찍어 봅시다.
- 여기에서 자애로움이란 자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따뜻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며, 엄격함이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정해진 바를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에게 나는 어떤 부모인가요? 자애로운가요? 엄격한가요? 아니면 엄격하면서 자애로운가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자녀는 건강하게 혹은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게 됩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는 사랑과 존중, 그리고 허용할 것과 허용하지 않아야 할 원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렇다면 부모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는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살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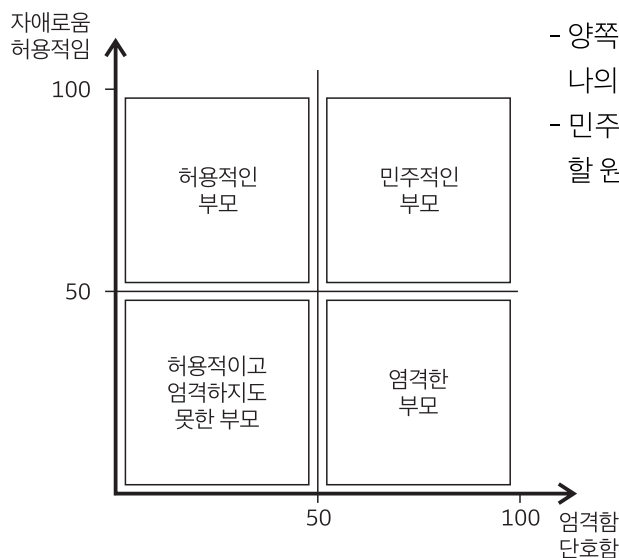
1. 자애롭기만 한 부모는 과잉보호형으로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고 주로 허용해주는 요즘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자녀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자녀에게 단호하지 못하고 늘 양보하지만, 때로는 극단적으로 벌을 주거나 분노를 폭발하여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를 너무 사랑하여 모든 것을 간섭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는데, 예로 그림그리기 대회에 나가면 자녀를 믿지 못하고 “여기에 00색을 칠해야지!, 여기는 이렇게 그려야지”, 급기야 “이리 줘봐”라고 하면서 직접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다면 자녀는 진정한 의미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호함으로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하는 장면을 부모가 보면 “왜 우리아이한테 화를 내세요?”라고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많아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의 양육태도를 취하면, 자녀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쉽게 좌절하며,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또한 버릇없어 보이기도 하고, 의존적인 특성을 보이지만 인정은 많고 따뜻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애롭기만 한 부모는 사랑에 존중을 더하여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맡길 수 있어야 하며, 허용하지 않아야 할 부분에서의 단호함과 말과 행동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엄격하기만 한 부모의 특성은 칭찬에 인색하고, 권위적이며, 자녀의 잘못에 반드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자녀들은 걱정이 많고,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지나치게 복종적이거나 순종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윗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감은 강하고 예의가 바른 장점도 있습니다. 엄격하기만 한 부모는 자녀를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야 하며, 잘못된 행동만 지적하지 말고, 올바른 행동에 대해 칭찬과 격려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3. 엄격하지도 자애롭지도 못한 부모 유형은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대부분의 매스컴에 등장하는 아동학대나 살인 등은 이러한 부모일 가능성이 큼니다.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무기력하며, 칭찬도 별로 주지 않고 비난만 하며, 자녀를 믿지 못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반사회적인 성격으로, 무질서하고, 적대감과 불신감이 많으며, 좌절감 또한 많이 느낍니다. 이 유형의 부모는 자녀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단호하게 지도하되, 바람직한 행동에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고, 자녀들의 욕구와 상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 엄격하면서 자애로운 부모는 민주형의 부모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며 원칙에 대해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부모는 자녀가 일으키는 문제를 정상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며, 자녀에게 적절하게 좌절을 경험하게 하여 자기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녀를 장점과 단점을 지닌 한 인간으로 간주하며, 자녀의 잘못을 벌할 때도 자녀가 가진 잠재력을 인정하여 발견하고 개발해 주고자 합니다. 이 유형의 양육태도를 취한다면, 자녀들은 자신감이 있고 성취동기가 높으며, 사리분별력이 있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자아존중감, 용기, 협동심과 책임감을 가진 아이를 원하는데, 자애로움과 단호함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다면 사랑과 존중의 자애로움과 원칙에 대해 일관성 있는 단호함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럴 때 자녀가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해하지 못하는 아이에서 최선을 다한 만큼 행복해하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양쪽의 50에서 가로와 세로로 줄을 그어보세요. 나의 점은 어느 부위에 찍혔나요?
- 민주형의 부모는 허용할 것과 허용하지 않아야 할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있는 양육을 합니다.



&

